

신재생에너지 붐 타고 농촌 파고든 '태양광 사기'

지나해까지 광주·전남 2만2601개 태양광 발전 '우후죽순'
"계약금 10%만 내면 고수익" 피어...570여명 148억 피해
해남 거점 40명 조직 범죄단 활동...총책·바지사장 엄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인기를 끌면서 '황금알'로 떠오른 태양광 발전을 둘러싼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해남지역을 거점으로 전국에서 고령의 농민 등을 상대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을 빼돌리는 조직 사기 범죄단까지 등장했다. 이들에게 무려 570여명이 당했고 피해금액만 148억 원에 달한다.

19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광주·전남에 총 2만2601개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됐다.

2021년에는 광주·전남에 3498개(광주 219개·전남 3279개)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신규로 설치됐고, 2022년 2914개(광주 205개, 전남 3037개), 지난해 3242개(광주 205개, 전남 3037개)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새롭게 설치됐다.

태양광 시설 설치가 가능한 부지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전남 농촌지역에서 발전시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당장 광주에는 총 1678개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섰지만 전남에는 2만 9323개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돼 있다.

사기범들은 태양광 붐에 들떠 있는 전남 등 농촌 지역 고령 노인들을 노렸다.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혹에 속아 피해자가 수백명에 달했다.

이들은 '계약금의 10%만 지급하면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연 1.74%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아 설비를 시공하고 20년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변제하면 된다'고 노인들을 꼬였다. '공사비 10%를 내면 90%의 공사대금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20년간 월 1% 이자로 회사에 상환하면 된다'는 상식밖 조건을 제기하기도 했다.

A(46)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전국 농촌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계약금을 가로챘다.

그는 업체를 만들고 직원들을 고용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시켜 사기 범행을 지속했다. 이들은 시설 전체 공사비의 10%를 계약금으로 받아 챙기고 공사를 하지 않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

구하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바지사장을 내세워 또다른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이어갔다. 피해자만 570여명이고 편취금만 148억원의 규모에 달했다. 조사결과 피해자와 계약한 장소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도 있었다. 이들 업체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면허도 없을 뿐더러 공사 하도급 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도 아니었다.

총책 A씨는 전체 사기범행을 총괄 하면서 직원들을 지휘·감독 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40여명에 달하는 피의자들에게 조직원 교육과 범죄 수업을 관리하는 역할 등을 맡겨 피해자들을 협박해 고소 취하를 유도하거나 계약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속여 고소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홀센터의 경우 전화상담에게 일명 '스크립트'(각본)를 쥐 계약금 10%만 내면 고수익을 약속하는 직책에 따라 실장·팀장·팀원 등 조직원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업무지시는 A씨로부터 순차적으로 SNS로 하부조직원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됐다. 전화상담원이 계약체결에 성공하면 팀장에게는 계약금의 1.5%, 팀원에게는 계약금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했고, 영업 사원이 계약을 최종 체결하면 계약금의 30%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매월 단체 대화방에 영업 매출을 게재해 가장 큰 수익을 낸 영업사원에게는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부진한 조직원에게는 욕설이나 폭언을 하면서 수익금을 늘렸다. 탈퇴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회유를 하고 업무용으로 개설된 단체방에 전송된 대화 내용은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는 치밀한 수법을 썼다.

법원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엄단했다.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해 활동했다는 것이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발전 사기 조직 총책 A씨에게 원심을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동일 혐의로 기소된 바지사장 B씨에게는 징역 5년, 나머지 바지사장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농촌마을에 있는 고령의 농민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범죄 단체를 조직해 활동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A씨는 총 100회를 초과하는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주된 내용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일자리박람회(왼쪽)에 몰린 인파. 광주대학교와 남구청이 주관하는 일자리박람회가 19일 광주 남구 광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박람회장을 찾은 구직자들이 부스를 돌아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기소, 기소 또 기소

검찰, 이재명 '법카 유용' 혐의로 6번째... 민주 "비열한 정치탄압"

검찰이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6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것에 대해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 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예산으로 6540만원에 구입한 제네시스 G80을 이 대표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 처럼 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음식 총 75건 약 889만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도 무상 제공 등을 받은 것이라며 문제 삼았다. 이 밖에 집안 제사에 사용된 제사용품 등 과일(2791만원 상당), 아침 식사로 먹을 샌드위치(685만원), 세탁비(270만원)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허위 지출결의를 통해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같은 해 10월 12일과 16일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날 6번째 기소로 이 대표는 일부 병합된 재

판을 포함해 총 5개(서울중앙지법 3개·수원지법 2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미 1심 선고가 났거나 선고 예정인 서울중앙지법 재판 2건은 향후 상급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추방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며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에 부여된 기소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한 수단인가"라며 "검찰의 비열한 정치 탄압을 규탄한다. 지금 정치검찰이 마치 방화범처럼 온 동네에 불을 지르고 있다"며 "정치권이 정치검찰의 방화 행태에 대해서 같이 규탄하고 단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고향사랑 기부하고 전라남도 쌀 받아보세요~

2만원 상당 전남쌀 추가 증정

10만원 기부시 100% 세액공제
기부금 30% 답례품

기 간
2024. 11. 1. (금) ~ 11. 30. (토)

추가답례품
2만원 상당 전남 쌀 (무작위 발송)

참 여 방 법
전라남도 도청에
① 10만원 이상 기부
② 답례품 주문
③ 답례품 후기 작성

당첨자 발표
1 차 2024. 11. 15. (금) 개별문자 알림
2 차 2024. 12. 13. (금) 개별문자 알림

후기작성방법 ilovegohyang.go.kr
고향사랑음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주문조회 ▶ 구매확정 ▶ 후기작성

문 의
전라남도 고향사랑과 ☎ 061-286-7782~5